

2010 새해에는

송천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

“50만대 양산으로 광주경제 불 지피겠다”

“6천700여 임직원들이 50만대 재편사업에 매진해 광주공장의 글로벌 도약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견인하겠습니다.”

송천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은 26일 “오는 3월 광주2공장 쏘울 증산 공사가 마무리되고 SL 신차가 출시되면 광주공장 40년 역사상 최초로 50만대 양산 공장이 된다”며 “이 사업의 성공이 아말로 기아차가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월드카 쏘울과 신차 SL 승부수 원칙 지켜지는 노사문화 만들것

기아차는 광주 최대 기업이다. 광주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제조업 총 생산액의 26.3%에 달한다. 수출은 광주 전체의 30%를 넘어선다. 모두가 스포티지에서 쏘울로 이어지는 수출 효과들 덕분이다. 특히 광주공장은 지난 2003년 소플종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라인 합리화 사업을 통해 연 6만대 생산공장에서 42만대 생산공장으로 성장했다.

송 공장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광주공장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쏘울 증산 프로젝트’와 ‘신차 SL의 성공적 출시’가 그것이다.

송 공장장은 올해 운영방침을 “미래를 위한 약속, 세계로 도약하는 광주공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고객 중심의 생산체제 구축 ▲공장품질 혁신으로 일등 품질 확보 ▲공장 체질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본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의 노사문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사 화합과 사회 나눔 활동을 중시했다. 이것이 아말로 50만대 재편사업 성공의 지름길이고 21세기 글로벌 공장 도약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생각에서다.

송 공장장은 “100년 전통의 GM도 한 순간에 문을 닫을 만큼 자동차 산업은 적자생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노사화합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 노사가 화합을 이루는 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출 출신인 송 공장장은 강원 춘천고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이사, 상무 등을 지냈다.

티지 후속모델인 SL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체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해외시장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쏘울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후 쏘울의 신차효과가 시들해지면 SL 신차 생산으로 신속하게 대체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송 공장장은 올해 운영방침을 “미래를 위한 약속, 세계로 도약하는 광주공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고객 중심의 생산체제 구축 ▲공장품질 혁신으로 일등 품질 확보 ▲공장 체질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본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의 노사문화 등을 강조했다.

송 공장장은 “100년 전통의 GM도 한 순간에 문을 닫을 만큼 자동차 산업은 적자생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노사화합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 노사가 화합을 이루는 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출 출신인 송 공장장은 강원 춘천고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이사, 상무 등을 지냈다.

이 는 지난해 글로벌 위기로 공항 이용객이 주는 등 항공 여행 수요가 주춤한 탓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공항을 이용한 국내선 탑승자 수는 1천302만명으로, 처음으로 김포공항 이용객(1천287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탑승객 가운데 김포~제주 노선이 4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김포~김해 12.6%, 김해~제주 10.8%로 뒤를 이었다. 광주공항은 2.9%에 머물렀다.

이밖에 에어 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수송분담률도 2008년 2008년 9.7%에서 지난해 27.4%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는 지난해 글로벌 위기로 공항 이용객이 주는 등 항공 여행 수요가 주춤한 탓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공항을 이용한 국내선 탑승자 수는 1천302만명으로, 처음으로 김포공항 이용객(1천287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탑승객 가운데 김포~제주 노선이 4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김포~김해 12.6%, 김해~제주 10.8%로 뒤를 이었다. 광주공항은 2.9%에 머물렀다.

이밖에 에어 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수송분담률도 2008년 2008년 9.7%에서 지난해 27.4%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정몽구 회장 ‘주식기부’ 왕

지자체 600억원어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 증여 배상면 국순당 회장 등 10억원 이상 기부자 7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주식 기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난해 주식기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억원 이상 주식을 장학재단 등 사회단체에 내놓은 기부자는 7명을 기록했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글로벌 주식 600억원어치를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 증여해 주식 기부 왕에 올랐다. 신각호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 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에 513억 4천만원어치의 개인 보유 주식을 증여했다.

지자체 11월 타계한 고(故) 허영섭 전 녹십자그룹 회장은 유언에 따라 생전에 보유했던 녹십자홀딩스 주식 342억원어치(30만주)를 사회재단에 기부했다.

배상면 국순당 회장은 작년 10월 자신 명의로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78억5천만원어치를 학술재단에 내놨다. 정형민 차바이오펜디오스텍 사장에 37억6천만원어치(26만9천998주)를 대학재단에 기부해 상장사 전문경영인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 주식을 사회에 환원했다.

진로, 광주·전남 사랑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 2억원 조성

㈜진로(대표 윤종용)가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26일 광주시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협약식을 했다.

협약에 따라 ㈜진로는 참이슬 ‘정(情)나누기 지역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이번 달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을 출연해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진로측은 현재 한 달 평균 300만병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매일 600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수(사진 오른쪽) (주)진로 호남본부장이 2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전남 사랑기금’ 조성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진로 제공

㈜진로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잔의 사랑나눔’ 캠페인을 벌여 63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3천431포(10kg)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 광주공항 이용객 ‘제자리 걸음’

전년과 동일한 136만명

지자체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항공 여행객수는 2008년 1천722만명보다 107만명(6.2%) 늘어나 200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광주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 울산 등 5대 공항 가운데 울산(-10.4%)을 제외하고 이용객수 증가 없는 공황으로 꼽혔다. 제주는 11.2%, 김포는 4.7%, 김해는 2.6% 이용객이 늘었다.

전국 10개 공항의 5년(2005~2009년)간 노선별 이용객수에서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했다. 김포~광주 노선은 이용객이 8.3% 감소했고, 제주~광주는 1.8% 증가에 그쳤다.

대형마트 과장광고 단속

공정위 설 앞두고 감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할인율과 할인품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전체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중점 감시대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쟁업체보다 싸지 않게 제품들을 판매하면서도 ‘최저가격’이나 ‘초

특가’와 같은 문구를 붙이는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국 6~7개 아웃렛 매장의 제품 할인율 등을 세밀하게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의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diabetes awareness with the headline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 and contact number 02-563-6668.

Advertisement for IONIA water purifiers with the headline '이오니아 1석 2조 테스트!' and contact number 1544-1219.